

일본 방문 외국인의 질병 및 부상 시 대응 안내

발열이나 호흡기 증상, 권태감 등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증상입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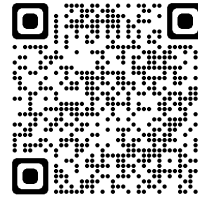
네

아니요

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

① 상담창구로 연락 (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 후 신속히))

A:도도부현 외국인용 상담창구
아래 사이트에 도도부현의 외국인용 상담창구 연락처 / 상담 가능 시간 / 상담 가능 언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.
<https://www.c19.mhlw.go.jp/area-kr.html>
B : 후생노동성 코로나 바이러스 상담창구 (A의 상담 가능 시간 이외에는 이쪽으로 연락하십시오)
【전화번호】 0120-565-653
【상담 가능 시간 / 상담 가능 언어】 토 / 일 / 공휴일을 포함한 매일.
영어/중국어/한국어/포르투갈어/스페인어: 9:00-21:00, 태국어: 9:00-18:00, 베트남어:10:00-19:00



② 검사

➢ ①의 상담창구/자치단체의 지시가 있을 경우, 검사를 받으십시오.
※예) 중증 위험이 있을 경우는 의료기관의 검사 등

(음성일 경우)

(양성일 경우)

③ 검사 후

➢ 양성인 경우, ①A의 상담 창구(또는 지정된 연락처)로 검사 결과를 연락하고,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입원 또는 격리하십시오.
➢ 아울러, 여행 동행자는 자신이 밀접 접촉자(정의는 ※2를 참조)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. 밀접 접촉자에 해당할 경우 대기하도록 하십시오. 필요에 따라 ① A의 상담창구(또는지정된 연락처)로 상담해 주십시오.

④ 【확진자】
입원 (10일간) / 격리 (7일간) ※1



확진자의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는, 자치단체에서 확진자를 대상으로 가입한 민간 의료보험 보상액 범위 내에서 자가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④ 【밀접 접촉자】
격리 (5일간) ※2



건강 상태는 자가 체크를 하여, 증상이 나타나면 ①A의 상담창구 (또는 지정된 연락처)로 연락하십시오.

④ 【검사 결과 음성】
【밀접 접촉자가 아닌 경우】
여행을 계속하십시오



유증상자는 검사가 음성이라고 해도, 건강 상태 관찰과 철저한 방역 대책을 부탁드립니다.

② ① 이외의 병 · 부상 질병 / 부상

① 의료 기관 진찰

증상에 맞는 의료 기관에서 진찰받으십시오.
아래 사이트에서, 외국인 수용 가능한 의료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https://www.jnto.go.jp/emergency/kor/mi_guide.html



의료 이외의 문의 창구

일본 정부 관광국 「Japan Visitor Hotline」
【전화번호】 050-3816-2787
〈365일/24시간 대응 (일/영/중/한)〉

※1: 확진자 격리 기간

- 입원 중인 경우는, 증상 발생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11일째부터, 또는 증상 호전 후 72시간 경과 후부터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.
- 증상이 있는 경우는, 증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상 경과, 또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후부터, 검사 없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.
- 증상이 없는 경우는, 양성이 확인된 검체 채취일을 기점으로 7일 경과 후 8일째 (5일째에 검사 키트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는 6일째) 부터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.

※2: 밀접 접촉자의 정의와 격리 기간

- 밀접 접촉자는,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근거리에서 접촉 또는 장시간 접촉하여,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을 가리킵니다.
- 밀접 접촉자는, '대략 1m 이내 / 15분 이상' 과 같은 감염자와의 접촉 거리 / 접촉 시간, 마스크 착용 유무 등을 가미한 후에 판단합니다.
- 밀접 접촉자의 판정 / 행동 제한은, 감염 상황 등의 지역 실정에 맞춘 자치단체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며, 모든 감염자에 대한 밀접 접촉자의 판정 / 행동 제한을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. ①의 상담 창구/자치 단체의 지시에 따르십시오.
-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은,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5일간 (6일째 해제) 이지만, 2일째 및 3일째에 승인된 항원 검사 키트를 이용한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는, 3일째부터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.

의료비 미지불 이력이 있는 외국인인, 향후 일본 입국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.

※ 지자체에 따라 대응 안내는 다를 수 있습니다.